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김윤선* · 강세진* · 이귀주* · 김유경*¹⁾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Dietary Education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Classes

- Focusing on the 7th Curriculum -

Kim, Yoon-Sun* · Kang, Se-Jin* · Lee, Gui-Chu* · Kim, Yoo-Kyung*¹⁾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dietary education in Technology-Home Economics classes. Out of the 444 survey respondents of 3r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gi area, 78.1% of them appeared to have obtained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diet and nutrition primarily from the dietary education delivered in Technology-Home Economics classes. Specifically, 62.6% stated "The current dietary education was useful," and 67.3% said "School dietary education was necessary." However, 88.7% was not even aware of the current Dietary Education Support Act, which was enacted in 2009. On the basis of the 28 subject categories in dietary education, in general, the more interested students were in a specific subject, the more actively they applied their knowledge of that subjects in real situations. In all categories, female students had a greater degree of interest and were more likely to apply that knowledge than male students. Among the 28 subjects, they had greatest interest in 'Dining Manners and Etiquette' and 'Nutrition and Meals for Adolescents' while they expressed relatively little interest in the subject of 'Cooking and Culinary Education'. Their perception of the necessity of dietary education was most highly influenced by their interest in the subject 'Nutrition and Meals for Adolescents', which was followed by gender difference and 'Dining Manners and Etiquette' as the most influential subjects.

Key words: 학교식생활교육(School Dietary Education), 관심(Interest), 실천(Practice), 식생활교육지원법(Dietary Education Support Act)

1) 교신저자: Kim, Yoo-Kyung, Anam-Dong, Seongbuk-Gu, Seoul 136-701, Korea
Tel: 02-3290-2828, Fax: 02-927-7934, E-mail: yookyung_kim@korea.ac.kr

I.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식생활 습관이 정착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식생활교육을 통해 영양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식생활을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청소년은 불규칙한 식사와 결식,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잦은 섭취 등 식생활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김복란, 2009; 김기남, 박은주, 2005).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은 주로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입시위주의 경쟁에 내몰리면서 밥상머리교육은 고사하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할 기회조차 갖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학교교육과정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중등교육과정에서 식생활교육은 기술·가정, 체육, 과학 등의 일반교과과정이나 특별활동시간, 급식시간, 학교 소식지와 가정통신문 등의 간행물, 그리고 교내방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김정현, 2010), 그중에서도 특히 가정교과과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식생활교육은 가정교과교육의 주요영역 중의 하나로서 주로 가정 또는 기술·가정 교과서의 식생활 관련단원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가정교과가 그동안 학교식생활교육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오는데 지난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정부차원에서 식생활교육 관련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 및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식생활교육지원법은 국가차원의 대국민 식생활교육의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의 학교식생활교육도 식생활교육지원법의 내용에 부응하도록 이루어질 전망이다(전세경, 2010).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식생활 관련 문제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길만한 일이며 동시에 오늘날의 학교식생활교육을 뒤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교과는 실천교과를 표방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식생활교육을 통해 습득된 지식을 실생활에서 응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학생들이 학교식생활교육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가정교과를 통한 식생활교육의 세부 주제별로 학생들이 얼마나 관심 및 활용의 정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학교식생활교육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김수연, 이심열, 2007; 박인영, 이심열, 2006; 김은숙 등, 2005)은 식생활 영역의 단원별 선호도 및 활용도 조사에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영역을 총28개의 하위 교육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및 실천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학교식생활교육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등 학교식생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한편 관심도, 실천도, 실생활에서의 도움정도, 학교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등 4개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성별, BMI, 관심도 및 실천도를 중심으로 판별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과교육에서의 학교식생활교육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 단원은 영양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식품 및 식단 선택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차명화, 김유경, 2005; 박민경, 2002). 현재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은 일반교과과정의 기술·가정, 체육, 과학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이들 교과목 중에서 학생들은 기술·가정 교과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조은미, 김미라, 2008).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기술·가정교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김은숙 등, 2005), 기술·가정교과에서 식생활 단원을 가장 선호

하고 있었으며(김수연, 이심열, 2007), 식생활 단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김운화, 2010; 김은숙 등, 2005). 그러나 특히 독립적인 가정교과가 ‘기술·가정’이라는 병합교과로 바뀌면서 식생활교육의 수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가정교과에 대한 수업시수 및 교과내용의 축소로 인해 식생활교육이 주로 강의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과서의 식생활 단원 내용 역시 주로 나열식 암기위주의 구성이라는 지적이 있다(장원숙, 2011; 차명화, 김유경, 2005). 또한 현행 학교 식생활교육이 사회적 변화에 보다 부합하는 내용이 되도록 재구성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김정현, 2010; 차명화, 김유경, 2005). 가정교과가 실생활에의 적용을 중시하며 체험학습을 통해 개념과 원리를 이해시키는 실천적·기능적 교과(박인영 등, 2005)라는 점에서 식생활교육은 단순히 지식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식태도나 식행동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때 비로소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식생활교육 지원법의 시행 등 최근의 사회적 흐름을 교과과정에 보다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현실적인 식생활교육의 구성 및 내용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2. 가정교과와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 관련 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지난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과정은 물론 식생활 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의 식생활 관련 문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서,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생활교육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식생활교육지원법은 향후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식생활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정교과 또는 기술·가정교과는 전통적으로 식생활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실제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기술·가정 교과서의 식생활영역은 대체적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전 조항을 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김지현,

김유경, 2010).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가정교과 내 식생활 단원의 내용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제시된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서 ‘제10조 어린이 식생활교육’을 제외한 6개의 조항 중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과 올바른 식사예절의 실천을 다루고 있는 ‘제7조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청소년 개인의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다루고 있는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단원, 가족의 건강을 고려한 식단 작성 및 식단 작성을 위한 올바른 식품구입과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단과 식품의 선택’ 단원, 가족의 균형 잡힌 식사 준비 및 바람직한 식사예절의 생활화로 구성되어 있는 ‘식사준비와 예절’ 단원의 내용과 관련된다. ‘제8조 식생활에 대한 이해와 감사’는 농어업 및 유통업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식품 선택’ 내용에서, ‘제11조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 중에서 주로 소비와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식단 작성’과 ‘식사 준비’ 내용에서 다룰 수 있다. ‘제12조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은 다양한 전통 음식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 음식문화를 이해하고 조상의 지혜가 담긴 문화의 가치를 배우며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 ‘식사준비와 예절’ 단원 및 원산지 확인 및 직거래 장터와 지역 농수산물 이용 등을 다루고 있는 ‘식품 선택’ 단원과 관련되어 있다. ‘제13조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은 식사준비와 식사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사준비와 예절’ 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이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가정교과 내 식생활 단원에서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중 ‘제7조 건전한 식습관 형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8조 식생활에 대한 이해와 감사’, ‘제9조 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제11조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에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4개의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중학교 기술·가정교과내 식생활 단원을 모두 이수한 3학년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010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설문문항을 수정,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457부(회수율 91.0%) 중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총444부(남 224명, 여 220명)가 본 조사에 이용되었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중학교 가정교과 식생활 단원을 모두 이수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문항은 조사대상 학생들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사용하였으므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 3학년용 기술·가정교과서 식생활 단원 내용 및 선행 연구의 설문문항(김수연, 이심열, 2007; 김은숙 등, 2005)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비만도와 학교식생활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군, 학교식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군, 그리고 식생활교육의 세부 교육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및 활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군 등으로 구성되었다.

비만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2>에서와 같이 조사된 신장(cm)과 체중(kg)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 전원의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산출하였다.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kg/m²) 계산하였으며, BMI에 따른 분류는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저체중(18.5 이하), 정상체중(18.5~22.9), 과체중(23.0~24.9), 비만(25 이상)의 기준에 따랐다(대한비만학회, 2005). 학교식생활교육 시행실태에 대

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과목과 시간을 통하여 식생활교육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지, 식생활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인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학교식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식생활교육이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별도의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3>). 한편 식생활교육의 세부주제에 따른 학생들의 관심 및 활용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식생활 단원의 내용을 총28개의 교육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식생활교육의 세부 교육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학생들이 사용하였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표 1>에서와 같이 12종의 중학교 1, 3학년용 기술·가정교과서 식생활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여 총 28개의 세부 교육항목을 추출하였다(<표 4> 및 <표 5>). 세부 교육항목 각각에 대한 관심 및 활용의 정도를 비교하기 쉽도록 관심 및 활용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 4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거나 활용하고 있는 경우 3점, 그리 관심이 없거나 활용하지 않는 경우 2점, 관심 및 활용이 거의 없는 경우 1점 등으로 수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표 1> 분석대상 기술·가정 교과서

제7차 교육과정	학년
(주)두산	1,3
(주)천재교육	1,3
형설출판사	1,3
대한교과서(주)	1,3
(주)지학사	1,3
(주)금성출판사	1,3
(주)교학사	3
성안당	1
교학연구사	1,3
도서출판 업무	1
홍진P&M	1,3
(주)동화사	1,3

3. 자료분석

조사된 모든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Ver. 12.0)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비만도와 식생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빈도와 백분율을, 식생활교육의 세부 항목 각각에 대한 관심도 및 실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였고, 성별에 따른 유의성 검증은 t-test, χ^2 -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은 이변량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BMI, 식생활단원에 대한 관심도, 실천도와 같은 변인들이 학교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별은 가변수(dummy variables)화하였다.

63.9±12.9kg, 여학생이 160.9±5.2cm와 52.6±7.4kg로 각각 나타났다(p<0.001). 한국인 영양섭취기준(2010)의 15~18세 체위기준과 비교했을 때 본 조사대상자의 체위기준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평균 BMI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21.3과 20.3으로(p<0.01), BMI 분포를 보면 남학생은 저체중 25.0%, 정상체중 47.3%, 과체중 10.3%, 비만 17.4%, 여학생은 저체중 24.1%, 정상체중 60.0%, 과체중 12.7%, 비만 3.2%로 나타나(p<0.001),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2009년에 조사된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09)에 따르면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남자 14.2%, 여자 8.0%로 보고된 바 있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신장, 체중 및 BMI

조사대상자의 신장, 체중 및 비만도는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다. 평균 신장과 체중은 남학생이 172.8±5.7cm와

2. 학교식생활교육의 시행실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식생활교육의 시행실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이 주로 식생활 관련 교과(82.4%)와 급식(6.1%)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과 중에서는 특히 기술·가정교과(94.8%)를 통해 식생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총 조사대상자의 78.1%가 주로 기술·가정교과로부터 식생활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식생활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표 2> 조사대상자의 신장, 체중 및 비만도 분포

		남 (n=224)	여 (n=220)	전체 (n=444)	t or χ^2
신장 (cm)		172.8±5.7 ¹⁾	160.9±5.2	166.9±8.1	22.837***
체중 (kg)		63.9±12.9	52.6±7.4	58.3±11.9	11.319***
비만도(BMI, kg/m ²)		21.3±3.9	20.3±2.5	20.8±3.4	3.399**
비만도 ³⁾ (BMI)	저체중	56(25.0) ²⁾	53(24.1)	109(24.5)	25.640***
	정상체중	106(47.3)	132(60.0)	238(53.6)	
	과체중	23(10.3)	28(12.7)	51(11.5)	
	비만	39(17.4)	7(3.2)	46(10.4)	

¹⁾ 평균 ± 표준편차

²⁾ N(%) **p<0.01 ***p<0.001

³⁾ 대한비만학회에 따른 BMI의 분류-저체중: <18.5, 정상체중: 18.5~22.9, 과체중: 23.0~24.9, 비만: >25.0 (대한비만학회, 2005).

62.6%가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되는 편이다’ 수치 합산)고 응답하였으나 남학생은 52.7%, 여학생은 72.7%로 각각 나타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학교식생활교육이 유용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았다($p < 0.001$).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7.3%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 수치 합산)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 77.3%, 남학생 57.6%로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비율이 남학생군에서보다 여학생군에서 19.7% 높게 나타났다($p < 0.001$). 식생활교육의 문

제점으로는 전체적으로 ‘수업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렵다’(31.8%)와 ‘교육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20.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여학생의 20.5%, 남학생의 14.7%가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1$). 향후 학교에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시행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53.6%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여학생의 58.6%에 비해 남학생은 48.7%만이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표 3〉 학교식생활교육 시행상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

분항		남 (n=224)	여 (n=220)	전체 (n=444)	χ^2	
식생활 교육시간	식생활관련교과 시간	기술가정	172(96.1) ¹⁾	175(93.6)	347(94.8)	8.901
		체육	4(2.2)	4(2.1)	8(2.2)	
		과학	3(1.7)	8(4.3)	11(3.0)	
		전체	179(79.9)	187(85.0)	366(82.4)	
	재량활동-특별활동시간	4(1.8)	5(2.2)	9(2.0)		
	급식시간	11(4.9)	16(7.3)	27(6.1)		
	방과 후 시간	8(3.6)	3(1.4)	11(2.5)		
기타	22(9.8)	9(4.1)	31(7.0)			
식생활교육의 필요성	전혀 필요 없다	27(12.1)	7(3.2)	34(7.7)	23.403***	
	거의 필요 없다	68(30.4)	43(19.5)	111(25.0)		
	필요하다	112(50.0)	143(65.0)	255(57.4)		
	매우 필요하다	17(7.6)	27(12.3)	44(9.9)		
실생활에 도움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2(18.8)	7(3.2)	49(11.0)	32.610***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64(28.6)	53(24.1)	117(26.4)		
	도움이 되는 편이다	107(47.8)	142(64.5)	249(56.1)		
	매우 도움이 된다	11(4.9)	18(8.2)	29(6.5)		
식생활교육의 문제점	학습자료가 부족하다	23(10.2)	33(15.0)	56(12.6)	20.188**	
	교육내용이 어렵다	25(11.2)	32(14.5)	57(12.8)		
	교육시간이 부족하다	33(14.7)	45(20.5)	78(17.6)		
	교육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	56(25.0)	37(16.8)	93(20.9)		
	수업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렵다	70(31.3)	71(32.3)	141(31.8)		
	기타	17(7.6)	2(0.9)	19(4.3)		
식생활교육의 참여의사	있다	109(48.7)	129(58.6)	238(53.6)	4.441*	
	없다	115(51.3)	91(41.4)	206(46.4)		
식생활교육지원법	알고 있다	25(11.2)	25(11.4)	50(11.3)	0.005	
	모른다	199(88.8)	195(88.6)	394(88.7)		

¹⁾ N(%) * $p < 0.05$ ** $p < 0.01$ *** $p < 0.001$

($p < 0.05$). 현재 시행중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7%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와 대체로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것이다. 기존 조사에서도 식생활 단원이 학생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거나(김윤화, 2010; 조은미, 김미라, 2008; 김수연, 이시열, 2007; 김은숙 등, 2005)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실생활에서 도움이 된다(김은숙 등, 2005)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한편 학교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학생의 경우 57.6%만이 학교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수긍하고 있는데 이는 여학생의 77.3%에 비하여 20여 % 낮은 수치로서, 이러한 경향은 학교식생활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및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 여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식생활교육에 대한 남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식생활 단원에 대한 관심도

기술·가정교과 식생활 단원의 내용을 총28개의 세부 교육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기술·가정교과 식생활 단원의 교육내용은 크게 건강과 식생활 영역(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식품 조리 영역(조리의 기초와 실제, 식단작성과 식품선택, 식사준비와 평가), 그리고 식생활 문화영역(식사예절) 등 세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28개의 세부 교육항목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높을 경우 4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경우 3점, 거의 관심이 없는 경우 2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 1점을 각각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식생활교육의 모든 주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단원별로 살펴보면, 관심의 정도는 식사예절(3.13), 식사준비와 평가(3.04),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단원(3.02), 식단작성과 식품선택(2.93), 그리고 조리의 기초와 실제(2.76) 순이었다. 관

심 정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식사예절 및 식사준비와 평가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관심의 정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총28개의 세부 교육항목별 관심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단원에서는 ‘아침식사를 반드시 하기’(3.36), ‘정상체중을 유지하기’(3.18),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기’(3.06), 그리고 ‘육류, 생선, 콩으로 된 음식을 적정량 섭취하기’(3.03)에, 식단작성과 식품선택 단원에서는 ‘식품구매시 영양표시,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3.32)와 ‘식품의 위생적인 보관/관리 방법 알기’(3.20)에, 식사 준비와 평가 단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하기’(3.10)와 ‘식사의 영양 및 조리, 위생 등에 대한 평가하기’(3.04)에, 마지막으로 식사예절 영역에서는 ‘식사예절 지키기’(3.30)와 ‘식사는 여러 사람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3.12)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음식 만들어보기’(2.55)와 ‘밥 중심의 한식 먹기’(2.69)는 전체 세부항목 중에서 가장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세부영역별 관심도를 보면, ‘우유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기’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의 관심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관심 항목이 유사하였다.

학생들의 식생활 단원별 관심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식생활 문화영역(식사예절)과 건강과 식생활 영역(청소년의 영양과 식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식품 조리 영역(조리의 기초와 실제, 식단작성과 식품선택, 식사준비와 평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현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교과서에서 ‘식사예절’ 단원은 식사하는 방법, 식사할 때의 자세와 태도, 식사 중의 대화 등 식사 예절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식품 조리 영역인 ‘조리의 기초와 실제’ 단원의 경우는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가정교과에 대한 수업시수 및 교과내용의 축소로 인해 충분한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학교 교육현장의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식생활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 즉 ‘식생활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 ‘수업내용을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및 ‘식생활교육이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제시된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제7조) 부분이었으며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제9조)과 관련해서는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교과 내 식생활 영역에서 해당 단원들이 차

지하는 비중에 있어서의 차이와 비슷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건강과 식생활’ 영역이며 그 다음이 ‘식품 조리’ 영역이다(장원숙, 2011). 그러나 ‘식품 조리’ 영역에서 실습위주로 진행될 수 있는 ‘음식 만들어 보기’ 내용은 실제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며 특히 2007 개정

〈표 4〉 식생활 단원에 대한 관심도

관련 단원	항목	남 (n=224)	여 (n=220)	전체 (n=444)	t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1)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및 급원식품 알기	2.79±0.67 ¹⁾	2.91±0.60	2.85±0.64	-2.049 [†]
	2) 영양소와 건강과의 관련성 알기	2.91±0.66	3.05±0.60	2.98±0.63	-2.264 [†]
	3) 아침식사를 반드시 하기	3.32±0.83	3.41±0.76	3.36±0.80	-1.280
	4)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세 끼 식사하기	3.13±0.81	3.16±0.72	3.15±0.77	-0.408
	5) 적절한 양만큼 식사하기(과식, 폭식하지 않기)	3.12±0.79	3.26±0.68	3.19±0.74	-2.040 [†]
	6) 밥 중심의 한식 먹기	2.60±0.82	2.79±0.70	2.69±0.77	-2.604 [†]
	7) 육류, 생선, 콩으로 된 음식을 적정량 섭취하기	3.03±0.74	3.04±0.60	3.03±0.67	-0.150
	8)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기	3.00±0.70	3.12±0.73	3.06±0.72	-1.809
	9) 우유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기	2.90±0.75	2.82±0.76	2.86±0.75	1.170
	10) 음식은 상감계, 찌지 않게 먹기	2.90±0.79	3.04±0.72	2.97±0.76	-2.008 [†]
	11) 편이식품, 가공식품 적게 먹기	2.86±0.75	3.06±0.67	2.96±0.72	-2.994 ^{**}
	12) 정상체중을 유지하기	3.08±0.72	3.28±0.68	3.18±0.70	-2.977 ^{**}
	평균	2.97±0.49	3.08±0.39	3.02±0.44	-2.613 ^{**}
조리의 기초와 실제	13) 기본 조리방법의 원리 알기 및 적용하기 (끓이기, 데치기, 찌기, 부치기 등)	2.94±0.77	2.99±0.74	2.96±0.76	-0.618
	14) 음식 만들어보기	2.43±0.85	2.67±0.84	2.55±0.85	-2.997 ^{**}
	평균	2.69±0.70	2.83±0.66	2.76±0.68	-2.199 [†]
식단작성과 식품선택	15) 식단의 의미와 중요성 알기	2.71±0.77	2.75±0.68	2.73±0.73	-0.517
	16) 균형 잡힌 식단 작성하기	2.77±0.81	2.89±0.75	2.83±0.78	-1.597
	17) 다양한 식품구매 장소를 이용하기 (재래시장, 대형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등)	2.59±0.81	2.72±0.74	2.66±0.78	-1.657
	18) 계절식품 및 대체식품을 활용하기	2.85±0.76	2.90±0.66	2.87±0.71	-0.698
	19) 친환경 농산물 먹기	2.88±0.82	3.05±0.68	2.97±0.76	-2.403 [†]
	20) 적절한 양으로 식품구입하기	2.78±0.83	2.97±0.70	2.88±0.77	-2.644 ^{**}
	21) 식품구매시 영양표시,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반드시 확인 하기	3.25±0.78	3.40±0.69	3.32±0.74	-2.207 [†]
	22) 식품의 위생적인 보관/관리 방법 알기	3.16±0.74	3.24±0.71	3.20±0.73	-1.157
	평균	2.87±0.54	2.99±0.44	2.93±0.50	-2.438 [†]
식사 준비와 평가	23) 식사의 영양 및 조리, 위생 등에 대한 평가하기	2.92±0.84	3.15±0.79	3.04±0.83	-2.972 ^{**}
	24)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하기	3.02±0.78	3.18±0.70	3.10±0.75	-2.331 [†]
	25) 식품 폐기물의 처리방법 알기	2.88±0.78	3.06±0.76	2.97±0.77	-2.400 [†]
	평균	2.94±0.67	3.13±0.57	3.04±0.63	-3.249 ^{**}
식사에 예절	26) 식품생산에서부터 조리까지 수고한 사람에 대해 감사하기	2.88±0.77	3.05±0.68	2.96±0.73	-2.468 [†]
	27) 식사는 여러 사람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3.02±0.78	3.22±0.63	3.12±0.71	-2.982 ^{**}
	28) 식사예절 지키기	3.21±0.78	3.39±0.63	3.30±0.72	-2.547 [†]
	평균	3.04±0.65	3.22±0.54	3.13±0.60	-3.200 ^{**}
	전체평균	2.93±0.49	3.06±0.41	2.99±0.46	-3.013 ^{**}

¹⁾ 평균 ± 표준편차 [†]p<0.05 ^{**}p<0.01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축소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실천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앞서 살펴본 관심도에서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단위별로 조사된 실천도 수치는 2.59~3.05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관심도의 수치 2.76~3.13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각 단위별로 전체 학생들의 실천도를 살펴보면 식사예절(3.05),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단위(2.75), 식단작성과 식품선택(2.70), 식사준비와 평가(2.68), 그리고 조리의 기초와 실제

4. 식생활 단원의 실천도

기술·가정교과 식생활 단위 및 28개의 세부 교육항목에

<표 5> 식생활 단원의 실천도

관련 단위	항목	남 (n=224)	여 (n=220)	전체 (n=444)	t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1)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및 급원식품 알기	2.42±0.82 ¹⁾	2.45±0.71	2.43±0.77	-0.356
	2) 영양소와 건강과의 관련성 알기	2.54±0.79	2.64±0.74	2.59±0.77	-1.264
	3) 아침식사를 반드시 하기	3.07±0.93	3.14±1.00	3.10±0.97	-0.754
	4)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세 끼 식사하기	2.82±0.95	2.76±0.98	2.79±0.96	0.632
	5) 적절한 양만큼 식사하기(과식, 폭식하지 않기)	2.77±0.87	2.88±0.79	2.82±0.83	-1.332
	6) 밥 중심의 한식 먹기	2.69±0.84	2.71±0.80	2.70±0.82	-0.336
	7) 육류, 생선, 콩으로 된 음식을 적정량 섭취하기	2.79±0.75	2.88±0.70	2.83±0.73	-1.396
	8)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기	2.77±0.84	2.99±0.81	2.88±0.83	-2.790**
	9) 우유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기	2.86±0.88	2.82±0.81	2.84±0.84	0.485
	10) 음식은 싱겁게, 짜지 않게 먹기	2.58±0.85	2.71±0.79	2.65±0.82	-1.660
	11) 편이식품, 가공식품 적게 먹기	2.53±0.85	2.63±0.75	2.58±0.80	-1.265
	12) 정상체중을 유지하기	2.75±0.89	2.80±0.77	2.77±0.83	-0.635
	평균	2.72±0.56	2.78±0.47	2.75±0.51	-1.385
조리의 기초와 실제	13) 기본 조리방법의 원리 알기 및 적용하기 (끓이기, 데치기, 찌기, 부치기 등)	2.75±0.86	2.93±0.82	2.84±0.84	-2.227*
	14) 음식 만들어보기	2.27±0.90	2.43±0.94	2.35±0.92	-1.779
	평균	2.51±0.73	2.68±0.70	2.59±0.72	-2.443*
식단작성과 식품선택	15) 식단의 의미와 중요성 알기	2.49±0.89	2.55±0.73	2.52±0.82	-0.879
	16) 균형 잡힌 식단 작성하기	2.40±0.86	2.45±0.78	2.43±0.82	-0.616
	17) 다양한 식품구매 장소를 이용하기 (재래시장, 대형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등)	2.46±0.90	2.65±0.89	2.55±0.90	-2.245*
	18) 계절식품 및 대체식품을 활용하기	2.69±0.86	2.74±0.80	2.71±0.83	-0.622
	19) 친환경 농산물 먹기	2.63±0.89	2.83±0.70	2.73±0.81	-2.549**
	20) 적절한 양으로 식품구매하기	2.49±0.90	2.71±0.79	2.60±0.85	-2.828**
	21) 식품구매시 영양표시,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반드시 확인 하기	3.12±0.90	3.22±0.81	3.17±0.85	-1.262
	22) 식품의 위생적인 보관·관리 방법 알기	2.77±0.79	2.95±0.79	2.86±0.79	-2.434*
	평균	2.63±0.61	2.76±0.51	2.70±0.57	-2.473*
식사 준비와 평가	23) 식사의 영양 및 조리, 위생 등에 대한 평가하기	2.66±0.87	2.76±0.85	2.71±0.86	-1.259
	24)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하기	2.62±0.87	2.79±0.79	2.70±0.84	-2.158*
	25) 식품 폐기물의 처리방법 알기	2.57±0.89	2.67±0.81	2.62±0.85	-1.260
	평균	2.62±0.71	2.74±0.64	2.68±0.68	-1.951
식사예절	26) 식품생산에서부터 조리까지 수고한 사람에 대해 감사하기	2.72±0.85	2.93±0.78	2.82±0.82	-2.695**
	27) 식사는 여러 사람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2.95±0.85	3.20±0.71	3.08±0.79	-3.405**
	28) 식사예절 지키기	3.15±0.77	3.32±0.68	3.24±0.73	-2.470**
	평균	2.94±0.68	3.15±0.59	3.05±0.64	-3.498**
	전체평균	2.71±0.55	2.86±0.46	2.78±0.51	-2.990**

¹⁾ 평균 ± 표준편차 *p<0.05 **p<0.01

(2.59)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식사예절($p<0.05$), 식단작성과 식품선택($p<0.01$), 조리의 기초와 실제($p<0.01$)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세 항목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한 내용을 보다 더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교육항목별로 학생들의 관심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단위에서는 ‘아침식사를 반드시 하기’(3.10), 식단작성과 식품선택 단위에서는 ‘식품구매시 영양표시,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3.17), 마지막으로 식사예절 영역에서는 ‘식사예절 지키기’(3.24)와 ‘식사는 여러 사람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3.08)에서 실천도가 높았다. 반면 ‘음식 만들어보기’(2.35)와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및 급원식품 알기’(2.43),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작성하기’(2.43)는 총28개의 세부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실천도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우유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기’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세 끼 식사하기’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실천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식생활 단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항목일수록 학생들의 실천도가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식생활 단원 영역에 대한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관심도를 나타낸 식사예절(3.13) 단원이 가장 높은 실천도(3.05)를 보였다. 김은숙 등(2005)도 식생활 단원의 학습내용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 인정할수록 실생활에 활용하는 정도가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식생활 단원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식사예절 단원은 식생활 단원에서 가장 높은 실천도를 보인 반면 조리의 기초와 실제(2.59)는 물론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였던 식사준비와 평가(3.04) 단위에서도 낮은 실천도(2.68)가 나타난 것은 청소년으로서 실생활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사정(예를 들면 식단 작성, 계절식품 및 대체식품 활용, 식품구입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식 만들어보기’ 항목의 낮은 실천도는 평소 학생들이 가정 내 식생활 관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각종 편의식품 및 가공식품이 이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실습수업이 가능한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시수 축소로 인해 주로 강의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현실과도 관련이 있다(차명화, 김유경, 2005).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및

급원식품 알기’, ‘균형잡힌 식단 작성하기’와 같은 이론 중심의 항목에서도 낮은 실천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실생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보다 탐구적이고 실험적인 관점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의 기본방향의 각 조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제7조)에 해당하는 항목에서는 학생들의 실천도가 높고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제11조),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제12조)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학생들의 실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가정교과의 교육과정이 대체로 영양과 식습관, 식단 작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학생들을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교과과정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식품의 소중함과 식품 생산자 및 유통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험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학생 개인의 식생활 개선은 물론 실천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5.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

식생활 단원에 대한 관심도, 실천도, 실생활에서의 도움정도 및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표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인들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특히 식생활 단원에 대한 관심과 실천 사이의 상호관련성이 높았으며($r=0.602$), 식생활교육이 실생활에서 유용하다는 응답과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응답 사이($r=0.578$), 식생활 단원에 대한 관심도와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사이($r=0.410$) 등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두 변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김수연, 이심열, 2007; 김은숙 등, 2005)에서 조사된 바와 유사한 것이다. 학생들이 식생활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생활교육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정교과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식생활교육은

〈표 6〉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

	관심도	실천도	실제생활의 도움	식생활교육의 필요성
관심도	1			
실천도	.604**	1		
실제생활의 도움	.296**	.267**	1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	.410**	.261**	.578**	1

**p<0.01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6. 학교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학생들의 성별, BMI, 식생활 단원에 대한 관심도, 실천도와 같은 변인들이 학교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인들이 학교식생

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의 22.2%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학교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성별,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단원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식사예절 단원의 실천도인 3개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단원의 관심도($\beta = .192, p < 0.01$)가 학교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성별 ($\beta = .147, p < 0.01$) 그리고 식사예절 단원의 실천도($\beta = .134, p < 0.05$) 순이었다.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단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식사예절 단원의 실천도가 높을수록 학교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단원은 청소년

〈표 7〉 학교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β		
성별	.220	.066	.147	3.315**	
BMI	-.049	.037	-.058	-1.320	
관심도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326	.110	.192	2.956**
	조리의 기초와 실제	.110	.062	.100	1.786
	식단작성과 식품선택	.081	.115	.054	.711
	식사준비와 평가	.131	.077	.109	1.691
실천도	식사예절	.001	.083	.000	.001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034	.100	.023	.339
	조리의 기초와 실제	-.043	.063	-.041	-.689
	식단작성과 식품선택	-.139	.101	-.105	-1.378
상수	식사준비와 평가	.035	.072	.032	.489
	식사예절	.157	.075	.134	2.104*
R ² =.222	F=10.263	p=.000			

*p<0.05 **p<0.01

기의 영양과 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영양문제를 분석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게 되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생활에서의 청소년 관심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학교식생활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장기의 청소년의 관심 및 고민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제중심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술·가정교과 내 식생활 단원을 모두 이수한 경기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식생활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학교식생활교육의 시행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떤 과목 및 시간을 통해 식생활교육을 받고 있는지, 식생활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학교식생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식생활교육이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또한 식생활교육의 범위 및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식생활단원의 내용을 총28개의 교육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로 관심 및 실천의 정도를 수치화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실천도, 식생활교육의 유용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 4개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학교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미치는 변인들을 판별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이 주로 식생활 관련 교과 과목(82.4%), 그중에서도 특히 기술·가정교과(94.8%)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78.1%)의 학생들에게 기술·가정교과 수업시간은 식생활과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얻는 주된 통로가 되고 있는 셈이다. 과반수의 학생

들이 학교식생활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며(62.6%) 필요하다(67.3%)고 여기고 있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식생활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수업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렵다’(31.8%)와 ‘교육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다’(20.9%)는 순이었으며, 학교에서 여타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53.6%가 참여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중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대해서는 88.7%가 모르고 있었다. 식생활단원을 총28개의 교육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학생들의 관심 및 활용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체적으로 식생활 문화영역(식사예절)과 건강과 식생활 영역(청소년의 영양과 식사)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식품 조리 영역(조리의 기초와 실제, 식단작성과 식품선택, 식사준비와 평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식생활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정도로는 식사예절(3.05),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단원(2.75), 식단작성과 식품선택(2.70), 식사준비와 평가(2.68), 그리고 조리의 기초와 실제(2.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교육주제일수록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식생활 단원에 대한 관심도, 실천도, 실제 생활에서의 도움정도 및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에서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식생활 단원에 대한 관심과 활용 사이에 상호관련성이 높았으며, 식생활교육이 실생활에서 유용하다는 응답과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응답 사이, 식생활 단원에 대한 관심도와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사이 등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교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단원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으며, 다음으로 성별, 식사예절 단원의 실천도 순이었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는 학교식생활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높은 관심을 갖는 주제를 중심으로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생활교육의 내용을 구성한다면 교육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남학생들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

심을 높이고 식생활교육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기술·가정교과서의 식생활 단원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사회의 현실을 보다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과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낡은 것으로 비쳐질 경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제시된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에 보다 부합하도록 교과내용의 구성 및 단원별 비중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해볼 필요도 있다. 가정교과를 통한 학교식생활교육이 보다 유용하고 실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강혜경 (2007).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교육 및 식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남, 박은주 (2005). 청주지역 중학생의 패스트푸드 섭취량에 대한 영양소 밀도 평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0(3), 271-280.
- 김복란 (2009). 원주지역 중학생의 패스트푸드 섭취정도에 따른 패스트푸드 이용태도 및 식습관 비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4), 19-33.
- 김수연, 이심열 (2007). 경기 일부 지역 중학생의 『기술·가정』 교과의 식생활 영역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4), 1-15.
- 김윤화 (2010). 중학생의 식습관, 영양지식 조사 및 기술·가정교과서의 식생활 교육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3), 117-128.
- 김은숙, 고무석, 정난희 (2005). 중학생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3), 53-70.
- 김정현 (2010). 가정과교육에서의 학교식생활교육 모색.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3), 189-203.
- 김지현, 김유경 (2010). 식생활교육지원법과 중학교 식생활교육 -2007 개정 가정 교과서의 식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4), 1-13.
- 대한비만학회 (2005). **한국인에서 비만 및 복부 비만 기준을 위한 체질량지수 및 허리둘레 분별점 설정 사업 보고서**
- 박민경 (2002).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 내용분석 및 교육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영, 이심열 (2006).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 교육이 학생들의 영양지식,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4), 25-38.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9).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이연정, 김지희, 한재숙 (2005). 한국 전통 식생활 예절에 대한 인식 및 실천정도.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0(4), 459-467.
- 장원숙 (2011).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중등 기술·가정 식생활 단원 연구: 제7차,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중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세경 (2010). 학교 식생활교육의 교육적 의의와 효율적 추진 방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1), 117-135.
- 조은미, 김미라 (2008). 식생활교육을 위한 대구시 중학생의 교육 요구도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46(7), 7-19.
- 차명화, 김유경 (2005). 식생활 단원 교육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변화 요구도 및 관련변인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4), 41-53.
- 한국영양학회 (2010).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개정판**.

<국문요약>

본 연구는 현재 기술·가정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식생활교육에 대하여 중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기도지역 중학교 3학년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유효응답자 444명 중 78.1%가 주로 기술·가정교과로부터 식생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으며, 62.6%가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67.3%가 '학교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시행중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대해서 88.7%의 응답자가 모르고 있었다. 식생활교육영역을 총28개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항목일수록 실천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관심도 및 실천도를 나타냈다. '식사예절' 및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영역과 관련된 교육항목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식품 조리' 영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식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는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단원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성별, '식사예절' 단원의 실천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논문접수일자: 2011년 5월 27일, 논문심사일자: 2011년 6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6월 22일